

# 관광 랜드마크 재탄생

### 익산 옹포 2400억 투입, 최대 규모 워터·테마파크·쉽 등 어우러지는 거점 기대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익산 옹포관광지가 2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여가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내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시는 수변 자원과 어우러진 대규모 레저관광 인프라로 젊은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모이는 익산 5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19일 시는 옹포관광지를 개발할 민간투자자가 선정되면서 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는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스원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에스원건설은 (유)삼교건설엔지니어링 (주)티유비, 두남건설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향후 (주)에스원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면 옹포관광지 3지구 27만3천여㎡ 부지에 약 4년간 총 사업비 2천400억 원을 투입해 레저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옹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옹포면 옹포리 173번지 일원 27만3천여㎡ 부지에 편의시설, 숙박, 워터파크(워터파크 또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2곳이 참여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19일 중국 산둥여업직업대학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력 기반 강화해 나가길”

### 군산대-중국 산둥여업직업대학, 교류협력·인재 양성 협약

군산대학교는 지난 19일 중국 산둥여업직업대학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김준성 팀장 및 이창용 전 임원, 산둥여업직업대학 이갑영 중국국제교육학원장, 인찬대 이조이 남북이카데미 사무처장, 한국국제문화

관물,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및 상호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다.

군산대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 혹은 다교 간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국제적 인 감각을 구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교육 교류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여업직업대학은 1958년 설립되어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소재한 공립대학으로 교원 634명, 재학생 10,000명 규모의 대학이다. 현재 인터넷학원, 전자상무학원, 빅데이터 계산학원, 공상관리학원 등 12개 단과대학, 35개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한경봉기자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절차 완료

군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불일치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공고·열람해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에 의해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50㎡ 이하 진입도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H=2.0m 이상, 2열식재, 1m 간격)을 추가해 주변경관과 농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이 맞는 실질적인 효과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기자

## ‘익산다이어움’ 정책발굴 이벤트 개최

익산시가 익산다이어움의 보다 나은 정책 수립 및 정책 발굴을 위해 익산다이어움 카드 소비 실태 설문 및 정책 제안 이벤트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시는 익산다이어움 운영 정책 수립 및 정책발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익산다이어움 카드 소비 실태 설문조사 를 이달 24일(수)까지 진행한다. 설문 성실 응답자에게는 1인당 1만원을 익산다이어움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는 익산시 홈페이지 및 착한페이(익산다이어움 앱), SNS 등의

설문참여 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이벤트 기간 내에 익산시 홈페이지 익산소식 코너에서 정책발굴 이벤트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기관메일(ksar30@kora.kr)로 발송하거나, 일자리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의 주요내용은 익산다이어움 카드 소비 실태 및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로 응답자 인적사항, 다이어움 사용 동기 및 지속 사용할 의향 2021년 10월중 업종별 사용내역, 다이어움 정책 만족도 및 제안 등 총 68문항이

다. 이중 2021년 10월중 업종별 사용내역에 대한 문항이 총 54문항으로 18개 업종에 대한 3가지 문항이 단순 반복되고 있고, 10월중 사용내역이 있는 해당 업종의 문항에만 응답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대상은 설문조사 주요 문항(총 68개 문항 중 54문항)이 올해 10월중 다이어움 사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1년 10월 기준 다이어움 카드 사용자로 한정한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연령대별 각 200명씩 1,000명을 조사 목표로 정하고 있고, 익산다이어움 연구용역 및 정책발굴 이벤트는 익산다이어움 운영대행사인 (주)KT와 함께 실시하며 이벤트 당첨 포인트는 12월 15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 익산 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장 활성화 추진

익산시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화동 일원에 위치한 구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접근성 확대와 쾌적한 쇼핑 환경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3억원(국비 8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5월 착공해 894.8㎡에 주차면수 19면 주차장을 조성했다. 효율적 관리와 향상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영은 익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구시장 상인회가 맡는다.

구시장은 익산시 인화동가 132-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매, 한복, 방앗간 등 다양한 상품으로 90여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이용객

을 포함하여 유동인구가 많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고 2차선 좁은 도로폭으로 교통혼잡을 빚어왔다. 이번 주차장 조성 통해 구시장 인근 교통혼잡 및 불법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전용주차장과 함께 지난 19년 9억원(국비 4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상3층 연면적 284.12㎡의 고객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보인다.

유근우 구시장 상인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시장 주차장 조성에 노력해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고객지원센터와 구시장 주차장을 통해 다시 찾는 구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 지역 소식통

###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Eco House 10호점 설치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하며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 소통동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허영재)과 지난 18일 한우리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한화에너지의 비전인 ‘안전한 에너지,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허영재 한화에너지 공장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기자

### 군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군산시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전라북도,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로 단속 계획을 사전인 후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를 확인한다. 또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확인 및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팔감 사용 금지와 무단 사용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적발보고서 작성, ▲방제 조치 명령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